

# 일 치

555. 일치여! 그대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대의 고향은 어디이고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나의 고향은 하늘나라이고 사랑이 나를 낳아주었으며 하느님의 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역사는 아름답습니다.

556. 하느님의 본질 안에 일치가 있습니다. 수도원의 본질 안에도 깊고도 신비스러운 일치의 힘이 존재하며 또 언제나 존재해야만 합니다. 수도원을 사랑에 넘치는 다락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치 말입니다.

557. 일치 안에 사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국경선에 사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입니다."(요한 10,30)

558.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의 혼인 잔치에 모이게 할 수 있는지요?

너희가 나의 사랑을 나누면 나에게서 일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요한10,16)

559. 높은 곳을 향할 때 하나로 모아집니다. 저 높은 정상에서 우리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크고 위대한 것은 깨어지지 않는 일치를 이루어 냅니다. 사랑과 고통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만큼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고 전 인격의 에너지의 통합이 이루어 집니다.

560. 그 무엇으로도 일치를 깨트려서는 안됩니다. 일치를 깨트리는 것은 모두 상대적인 것이고 보존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대의 사고 방식과 스타일을 버리십시오. 가능하다면 그대의 인격조차 버리십시오. 하느님 안에 잠기십시오 그러면 그대 사랑의 눈길과 미소 하나만으로도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561. 수도원은 일치를 호소합니다. 이 이름을 수도명으로 가진 수녀는 수도원 전체의 이름으로 이 일치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본질은 일치입니다."

하나로 뭉쳐지기 위해 밀알이 되고 빵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대 자신을 버리십시오.

562. 모든 것이 일치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교만이 그렇습니다. 깨알 같은 작은 교만이 산 같은 성덕을 해체시킵니다. 일치를 향해 투신하고 그에 협력하십시오.

563. 우리가 지상의 사물들에 묶여 있는 동안 그 자체로 우리는 흩어지고 맙니다. 반대로 그것들을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게 한다면 우리 시선은 하느님 안에 잠기게 되고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는 모두가 일치되고 통합되고 용해되며 용해되지 않는 것은 타 없어집니다.

564.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되게 하소서."(요한 17,21) 이는 그리스도의 영원인 동시에 그분의 명령입니다.

니다.

우리가 일치를 손상시킬 때 마다 우리 영혼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하느님의 계명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일치가 손상될 때 얼마나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565. 일치하는 삶을 통합시킵니다. 분열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 존재의 모든 에너지의 통합을 이루어 냅니다.

566. 이제 그대의 사명을 깨달았습니까? 그대의 사명은 자매들 안에 그리고 그대 영혼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일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뿌리깊은 향주덕으로 이 현존을 살아가십시오.

567. 일치는 영원한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는 하늘스런 환경 속에 재배될 때에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568. 가끔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일치를 힘들게 하는지요!

569. 침묵 속에서 세상을 향해 일치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호소는 오직 높은 곳으로부터 외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은 엄청난 일치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하느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서로가 너무도 다른 대륙들이 모두 하나가 됩니다.

570. 그대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까? 그렇다면 원칙 하나를 보여 주겠습니다. 사소한 것들에서 눈을 떼고 항상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구태여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치할 것입니다.

571. 아버지 모두 하나되게 하소서. 색색의 인종과 민족과 백성들이 일치되게 하소서. 그렇지만 예수님, 여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게 해당되는 몫을 치르고 싶습니다. 모든 이의 벗이 되고 싶습니다.

572. 수도원은 심오하고 은밀한 신학적인 차원의 기쁨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동시에 깨어지지 않는 일치를 용감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되게 하소서" 하신 주님 말씀의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573. 높은 곳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높이 오를수록 그 아름다움은 한층 더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벼울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또 높이 올라 갈수록 더 많이 일치합니다. 이해했는지요? 결국 가벼울수록 더 많이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574. 수도원 안에 깨어지지 않는 일치를 창조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치는 매일 매일의 사랑과 하루하루의 형제애와 뜨거운 우정으로 엮어집니다.

575. 가끔 우리를 강하게 묶어놓은 끈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전율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대 삶 안에 존재하는 그대 자신의 현존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보다 훨씬 더 실재적이고 힘있고 생명력 있는 현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매들 안에도 그대와 똑 같은 하느

님의 현존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것이 우리를 그토록 강하게 묶어주는 일치의 끈이요 매듭인 것입니다.

576. 늘 일치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분께 받을 몫이 없습니다.

577. 사물이나 사람 자체만을 보면 일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높은 데서 바라볼 때, 항상 일치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578. 일치하는 사랑의 찬가입니다. 일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로 갈라지고 있습니까? 그대의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오.

579. “아버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되게 하소서.”(요한 17,21) 이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랑의 유언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참으로 위대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580. 하루하루 더 일치하고, 우리의 평화는 나날이 더욱 깊어지며 우리 사랑은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의 기쁨은 점점 더 견고해지며 우리 일치는 더욱 더 단단해져 깨어질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면 죽기까지 쏟아 부읍시다. 무엇보다 침묵하는 삶, 그러나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내어 줍시다.

581.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결코 일치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치는 우리 생명보다도 더 강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며 신성한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인간적인 일로 일치가 깨져서는 결코 안됩니다.

582. 일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가지만 무성하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583. 사랑은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그대는 사랑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신명 6, 4) 첫째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따르는 결과가 일치입니다.

584. 일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585. "종기도 좋을씨고... 형제들이 한데 모여 사는 것" (시편 132, 1) 형제들이 한데 모여 살지 않는다면 형제애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586. 예수님, 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고 생명과 죽음, 고통과 기쁨을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587. 신발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땅바닥을 쳐다보아야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대의 눈을 들어 올려 길 바닥 돌맹이들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일치할 것입니다.

588. 우리의 일치가 깨어질까 두렵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는 결코 일치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두려움이 서서히 가셔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 놓을 수 없도록 저 높은 곳을 향해 찾아가지 않으렵니까? 높은 곳은 언제나 하나로 모읍니다.

589. 포도원지기여! 그대 밭의 포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농부여, 밀이삭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포도에서는 포도주를 내어주고 밀에서는 빵을 내어주십시오.

모든 것이 일치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술을 마시는 사람은 일치 안에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신비이고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